

〈제3회 한국현대문학자대회〉 라운드테이블 ‘연구자의 판짓’

이한빛*, 조익상**, 장기영***, 이용희****, 최나현*****,
이한솔*****, 정고은*****, 코쭈 리더아*****, 김민정*****

국문초록

이 글은 2026년 2월 20일 열린 제3회 한국현대문학자대회 문화팀 라운드테이블 ‘연구자의 판짓’의 기록이다. 본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판짓’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연구라는 단어로 수렴되지 않는 연구자의 다양한 활동이 연구자 개인의 정체성과 학술헌동체 문화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논의했다.

먼저 네 명의 발표자는 만화평론 및 강의, 공연예술 비평 및 기획, 웹소설 창작 및 출판, 인터뷰집 제작 및 노조 활동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판짓’의 의미를 다각도로 논의했다. 발표자들의 논의에 따르면 ‘판짓’은 단순히

* 제1저자, 연세대학교 강사, 캣츠랩 연구위원

** 공동저자, 서원대학교 웹툰콘텐츠학과 조교수, 캣츠랩 연구위원

*** 공동저자,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강사

**** 공동저자, 한양대학교 강사

***** 공동저자,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강사

***** 공동저자,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수료

***** 공동저자,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선임연구원

***** 공동저자, 카포스카리 베니스대학교 강사

***** 공동저자, 서울시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

연구 외의 주변적 활동이 아니라, 학계 안팎의 동료·시민들과 접촉하며 연구자가 수행하는 학술 활동의 사회적 의미를 되묻는 과정으로 다시 정의될 수 있다. 한편 ‘본업’과 ‘판짓’의 경계는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국가나 사회가 학계에 요구하는 바에 따라 달라지는 연구자의 ‘본업’과 ‘판짓’ 사이의 구별은, 연구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연구자의 삶을 옥죄는 조건이 될 수 있음이 지적됐다. 특히 논문 생산만을 연구 ‘성과’로 인정하는 현재 학계의 제도적 관행은 학술공동체에 대한 다양한 기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다. 이어지는 질의응답 및 토론 시간에는 연구와 생계의 양립, 시간 관리와 자기 돌봄, 학계와 사회의 연결, 연구자 공동체 활동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현재 연구자들이 처한 구조적 조건과 대응 방식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공유했다.

본 라운드테이블은 연구와 판짓의 경계를 둘러싼 다양한 경험과 인식을 공유함으로써 연구자의 삶과 학문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새롭게 성찰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주제어: 연구자의 판짓, 연구자 정체성, 학술공동체, 연구와 생계, 자기 돌봄)

일시 및 장소

2026년 2월 20일 13:40~15:40, 이화여자대학교 학관 551호

사회

이한빛(캐츠랩)

패널

이윤희(한양대), 장기영(연세대), 조익상(서원대), 최나현(부산대)

1. 1부 패널 발표

이한빛 : 이번 세션은 제3회 현대문학자대회 문화팀에서 준비한 라운드테이블 ‘연구자의 판짓’입니다. 몇 년간 인문사회 학술계에서도 연구와 일 외에 여가, 휴식, 재생산을 위한 많은 활동들에 관심을 가져왔던 것 같은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그리고 그것을 좀 더 확장하면서 오늘의 라운드테이블이 준비되었습니다.

한국문학 및 문화 연구자로 정체성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논문을 생산하는 것 이외에 자기 자신을 지속해 온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일과 휴식의 이분법적인 구분 하에는 적절하게 설명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대문학자대회 문화팀에서는 이 영역을 ‘판짓’이라는 조금은 가볍기도 하고 캐주얼하기도 한, 그래서 더 범용성이 있는 단어로 포착해 봄으로써 우리가 연구의 주변에서 또 는 연구와 멀리 떨어져서 해 오던 일들을 이야기해 보고, 이것과 우리 학계가 그리고 연구자로서의 자신과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구성되고 또 갈등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네 분의 선생님들을 모셨습니다. 연구 분야, 전공, 학제가 모두 다른 만큼 연구와 판짓의 관계에 대한 고민을 다양하게 열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중에 계신 그리고 온라인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내가 하는 판짓과 나의 연구와 이 학계와의 관계를 여러모로 생각해 보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분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발표로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 바로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조익상 : 안녕하세요. 첫 번째로 발표할 조익상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만화를 연구하는 사람인데요, 원래는 국문학과에서 식민지 시기 문학 연

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발표 자료에 예스러운 글씨체로 제목을 장식해 보았습니다.

사실 ‘연구자의 판짓’이라는 주제를 받았을 때 ‘나는 연구자가 아닌 것 같아, 나는 “판짓자”인 것 같아’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극의 셰프>라는 영화에 카네다 히로시라는 인물이 자기는 라멘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몸이 라멘으로 되어 있는데 남극에서 라멘을 못 먹으니까 너무 힘들다고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분처럼 저도 몸이 완전히 판짓으로 되어 있으니 ‘판짓자’라고 불러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판짓에 천착해 왔는가 하면, 2023년에 제가 쓴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자문자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간 다양한 주제로 글을 써왔지만 정말 전문적으로 이것은 내가 천착해 왔다 할 만한 것은 뭐지?” 그때 바로 떠오른 첫 번째 단어가 ‘판짓’이라서 그렇게 썼더라고요. 이 라운드테이블이 꾸러지기 전부터 그랬단 거죠.

제 소개를 담은 슬라이드에도 저의 판짓이 빼곡합니다. 제가 여기저기 특강하거나 할 때 보여드리는 페이지인데요. 노란색으로 표시한 걸 보시면 연구자라는 표현은 문화연구자라는 말 빼고는 전혀 없죠. 만화평론가고 또 만화 스토리 작가로도 데뷔한 적이 있고, 만화 전시를 해본 적이 있고, 또 만화상 관련 심사위원 일을 많이 했고, 이런저런 잡지에 기고했고, 책을 공저했고 그리고 인터뷰 구술로 한 책들을 엮었고 등의 방식으로 저를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이 모든 게 연구자로서는 판짓에 해당하는 일로 여겨집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들 중 ‘연구이사’라든지 ‘연구위원’이라든지 등 ‘연구’가 들어가는 자리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근 10년간 등재지에 발표한 학술논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연구를 안 한 거예요. 『황해문화』나 『문화/과학』 이런 등재에 관심 없는 학술 잡

지에 기고한 적은 있습니다. 또한 이런저런 자리에 만화평론, 만화연구에 해당하는 글을 기고했습니다만, 만화에 대한 학술논문을 등재지는 물론 등재후보지에 내본 적은 없습니다.

이처럼 판짓자인 저를 돌이켜보다 보니, ‘판짓’은 언제부터 쓰였나 궁금해졌습니다. 식민지기 연구를 했던 짬밥을 살려서 신문기사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1923년부터 판짓이 발견되는데, 물론 그전부터 언중들 사이에서 쓰였겠죠. 1923년 기사의 용례가 재미있습니다. “명색만 교장이지 판짓을 하면 그 학생, 학부모, 생도는 어찌란 말이나” 대략 맥락을 말씀드리면 보통학교 교장이 이제 소학교까지 설치한다고 설치고 있는데, 그걸 보고 판짓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맥락에서는 이게 판짓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때는 식민지적 맥락도 있어서 판짓으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런 기사에 쓰인 ‘판짓’을 제가 폰트가 예뻐서 가져와서 발표자료 여기저기 쓰고 있습니다.



〈그림 1〉 ‘판짓’이란 단어가 쓰인 기사

그래서 판짓이란 무엇인가. 사전도 찾아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생각해보니 정의상 판짓을 하려면 적절한 직, 정해진 직, ‘본업’이라고 할 만한 게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게 없으면 판짓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거의 판짓으로만 정체성이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본업이라고 할 만한 게 있으니까 판짓을 하고 있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들이 떠올랐는데요.

저처럼 본업이 판짓인 ‘판짓자’인 사람은 어쩌란 말인가? 본업이 정말로 연구인 연구자는 또 얼마나 있는가? 이때 본업을 직장 같은 거라고 한다면, 그걸 가진 연구자는 또 얼마나 있는가? 등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의를 더 명확하게 해서 본업을 ‘논문으로 이어지는 연구’라고 한정한다면, 그 외의 모든 일은 판짓이라고 또 말할 수 있을 테지요. 그렇다면 평론도 강의도 판짓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야호!’를 외쳤습니다. 이게 왜 ‘야호!’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소리가 내면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하는 판짓들을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우선 돈 쓰는 판짓과 돈 받는 판짓입니다. 돈 받는 판짓 위주로 말씀을 드리자면 강의, 기고, 심사, 발표, 학생지도, 각종 사업 등등이 있더라고요. 이때 강의를 돈 받는 판짓으로 분류되는 것은, 물론 연구가 아니어서이기도 합니다만, 학기 초쯤 되면 대학에서 강의하는 동료분들과 ‘이번 학기는 몇 시수를 맡으셨습니까?’ 같은 질문을 나누잖아요. 그런데 그때 시수가 많을수록 뭔가 민망해지고, 공부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 연구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15시수 이상으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강의를 연구를 방해하는 판짓이 되는구나 싶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스스로 연구논문을 발표한 적이 없다 보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돈은 받지만 판짓이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류입니다. 연구로 이어질 것 같은 (연구로 이어진다는 아니고, ‘연구로 이어질 것 같은’입니다) 판짓과 연구로 잘 안 이어지는 것 같은 판짓으로 나눌 수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제 경우 만화평론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화를 많이 보고 만화와 연관되는 콘텐츠를 많이 보고, 그런 각종 감상이 쌓이면 어느 시점에는 연구로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또 저는 캣츠랩이라는 독립연구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여기서 선생님들과 같이 세미나 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저런 연구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강의, 기고, 학생 지도, 각종 대학 사업 등등은 연구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무척 주관적입니다만, 그렇습니다.

이것도 주관적으로 명확한 분류인데요, 즐거운 판짓과 덜 즐거운 판짓이 있습니다. 분류하고 나서 보니까 돈 쓰는 판짓과 돈 버는 판짓 보여드렸던 것과 거의 동일하더라고요.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이를테면 저는 고양이 수발하는, 고양이 집사인데요. 수발을 드는 게 너무 즐거운 판짓이고요. 또 연구자 공제회에 후원하고, 이런 일들도 연구자 정체성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후원함으로써 뭔가 정체성을 가져오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즐거운 판짓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 덜 즐거운 판짓 아래 강의와 학생지도에 제가 팔호를 친 이유는, 이 둘은 덜 즐거운 판짓의 카테고리에 들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안 즐거운 것은 아니라는 해명을 해 두고 싶어서입니다. 각종 사업은 주로 돈을 따오고 운영하는 그런 대학 사업을 말하는 건데요. 이것은 재미가 많이 없어서 굵게 표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실한 판짓’과 ‘판짓이라기엔 좀 섭섭한 판짓’을 분류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보니 앞에 있던 게 대부분 ‘판짓이라기엔 좀 섭섭한 판짓’으로 들어가더라고요. 확실히 그냥 판짓이라기엔 섭섭한 일들입니다. 저와 너무 가까운 일인 것 같고요. 하지만 앞서 재미없는 판짓으로도 분류되

있던 각종 대학 사업들은 재미가 없고, 연구와도 제 정체성 과도 연결되지 않는 ‘확실한 판짓’인 것 같다는 생각을 아직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업을 따라 한다거나 맡게 되는 때가 온다면 다를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란 말인가. 약간 급한 결론입니다. 연구자의 판짓과 비(非) 판짓, 판짓이 아닌 것을 중심으로 판짓을 규정하는 에피스테메가 분명히 있어 왔던 것 같아요. 1923년 신문 기사도 보여드렸습니 다만, 당시 교장의 판짓에 대해서도 지금과 다른 에피스테메가 적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요. 이 에피스테메는 있어 왔고, 변해왔고 또 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판짓은 쪽 즐거울 것 같아서, 판짓을 좀 더 중심으로 해서 에피스테메를 재규정하는 식으로 생각을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영 :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문학 전공하는 장기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발표 제목을 〈판짓이 뭐였…죠? 적극적으로 망설이며 판짓하기, 연구는 덤〉이라고 지었는데요. 사실, 섭외 전화를 받고는 ‘판짓’하면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어서 하겠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판짓이 뭘까?’ 더구나 ‘연구자의 판짓이라는데 내가 연구자가 맞을까?’ 질문하며 쪽 제 활동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는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인데요. 수료 후 5년 정도 지내면서 그간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그리고 이때 가진 질문들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망설이면서 판짓을 하는데요. 사실 ‘본’과 ‘부’를 잘 구분하지 못하겠습니다. 학부 때는 현대문학과 문화비평학을 전공했고, 학부와 대학원 시기 걸쳐서는 문화부 기자로 3년 정도 지냈고, 마음에는 동료 몇몇 분들과 같이 비평 웹진을 만든 적이 있기도 합니다. 현재는 재현,

비재현의 역학과 윤리 등에 중점을 두고서 한국, 일본의 1990년대 작가들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장애 공연 예술, 특히 장애 연극에 관련된 비평을 지금 주로 생산하는 중이고요. 실은 연구자라고 생각하기도 뭣하고, 연구자라고 생각하지 않기도 뭣한 것 같습니다. 연구 행위와 관련한 나름의 기점을 설정하자면, 소논문이 학회지에 게재된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제가 지속적으로 ‘연구’와 직결된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그게 ‘본(업)’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는 상태이고요.

다만 라운드테이블 주제에 맞추어 연구를 ‘본’에 준하는 무엇이라고 준거점 삼고 말씀드리자면, 제가 써왔던 논문들의 줄기를 나름 엮어보자면 재현의 역학이나 그 인식에 대한 재고입니다. 오늘 자리에서는, 제 논문 소개보다는 이걸 쓰면서 들었던 ‘잡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나의 논문을 읽는 이는 누구일까? 읽기는 할까?’ 라는 질문은 늘 끊이지 않았고요. 그 외에도 학계 내에 규율과 규범을 강렬히 느끼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감각 안에서 저의 정체성이랄 게 참 단조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수료한 지 꽤 되었다 보니, 마치 영원한 연습생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졸업하고 나면 정말 나는 버젓한 연구자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걸까?’ 이것도 사실 그렇게 확신이 들지 않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나를 이대로만 존재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맞을까?’ 라는 질문이 들었고요. ‘나의 지적 성취감이나 어떤 학술적 욕망을 제외하고 나면 이 연구 활동이라는 것, 그리고 거기서 얻어지는 결과물들이 대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남을 수 있을까?’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의 의미도 참 중요하지만, 그를 통해 실질적으로 동시대 안에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계속 이러

한 질문들이 뭉돌았고요.

그리고 매번 ‘지금의’ 하고 싶은 말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지금 하고 있는 말에 얹고 싶은 말이 있기도 하고, 제가 따로 던지고픈 말도 있고요. 제가 잘못 연구를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연구를 할 때면 ‘연구에 집중해야 돼’, ‘내 현실은 잠깐 차치해두고’ 라는 감각이 늘 있는데, 사실 연구 중에도 생은 계속되는 거잖아요. 연구에 매진한다고 하여 나의 수다스러움을 한편에 차치해 둘 수가 없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그리고 그 수다스러움을 표현하기로 결정했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표현은 무슨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 가지면서 논문을 써왔던 거예요.

그래서 하게 된 판짓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공연예술 비평입니다. 2023년에 장애 공연예술 작품들에 대한 리뷰와 생각을 엮어서 단행본을 낸 적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매체에 기고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연은 동시대적 해석과 평가가 바로 필요한, 즉 현장 비평이 필요한 장르인 듯합니다. 그래서 작품 안팎에서 작업자들과 협업을 하는 마음으로 내부, 외부 비평을 수행하는 중입니다. 가령, 내부 비평가(드라마터그)로 참여한 작품은 〈문라이트 오키나와〉, 〈공룡과 공룡동생〉 등이 있고요. 그 외에도 공연 전문 매체나 기관에서 취재, 워크숍, 좌담, 발표 등의 의뢰가 들어오면 이 활동들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판짓을 하는 중에도 격렬히 판짓을 하고 싶어 별인 일이, 지난해 기획한 연극제였는데요. 연극 창작자 6명(팀)을 모아서 연희동에 자리한 복합문화공간에서 하루에 공연 한 편씩 올리는 행사를 주최한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 〈꺾(극)적이는 객석들〉이고요. 한 공간을 어떻게 좀 다르게 향유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공연이 일어나는 동안 공연을 보고 있는 몸들의 실존’에 대한 문제의식을 논문·비평의 형

태가 아니라, 공연 그 자체로 풀어보고자 했습니다. 아래가 포스터랑 일정 표고요.



〈그림 2〉 연극제 〈굵(극)적이는 객석들〉의 포스터 및 일정표

저는 객석에 앉아서 자주 내가 앉고 있는 이 자리(객석)에 대해 자주 생각해요. 규격화된 환경에서 불편함을 자주 느끼는 몸을 가지고 있고, 그 불편함으로부터 생각을 멈추지 않는 편이라서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던 듯합니다. 러닝타임이 한두 시간짜리인 작품도 있지만, 길게는 세네 시간짜리 공연들도 더러 있어요. 제한된 자리에 정자세로 앉아서 그 시간 내내 ‘보는 자’로만 있는 것은 사실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연을 하는 건 배우들이고 관객은 편하게 앉아서 보기만 하는데 뭐가 힘드냐’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어떤 몸이든 제한된 환경 속에서 규범적 역할을 수행하는 일은 당연하거나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특히 ‘장애’를 공부하면서

더욱 이 생각을 확신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연극제를 통해 공연이 일어나는 동안 공연을 보고 있는 몸의 실존들을 자꾸 논외로 치부하는 공연제, 공연 시장에 대한 문제의식을 발전시켜보고 싶었습니다. 객석에 있는 기존의 규범들을 좀 하나씩 뒤집어 보자, 하는 마음으로 위의 포스터처럼 매일 각각의 콘셉트를 가지고 작품을 발전할 여섯 명(팀)의 예술가들에게 작업을 의뢰한 것이었어요. 혹시 연극제 내용이 더 궁금한 분이 있다면 저희 연극제 공식 사이트가 있으니 여기를 참고해보셔도 됩니다.

(<https://sites.google.com/view/krrr-chuck?usp=sharing>)

또한 이 연극제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이란 게, 연극제로만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요. 객석에 대한 여러 이야기와 아이디어를 공연자뿐 아니라 실제 관객에게도 들어야 한다, 는 취지에서 포럼 형태의 ‘이야기장’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분들이 직접 나와서 자신의 관객 경험을 얘기하는 자리인데요. 특히 ‘미스핏(misfits)’, 즉 각자 자기 몸이 이 환경과 어떤 불화와 부조화를 겪는지 아주 사사로운 이야기들을 펼쳐보자, 하는 의도에서 진행한 행사입니다.



〈그림 3〉 이야기장 행사 현장 사진 © 굿(극)적이는객석들 (촬영 : 이지수)

이 난잡한 판짓들을 거칠게나마 정리하자면, ‘얼마나 변할 수 있는지’를 회의하는 대신에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를 실천적으로 고민하면서 벌인 일들 같고요. 저는 ‘기다림’이 제 삶을 설명하는 상태일 때를 견디지 못하겠더라고요. 논문 쓰는 데에는 한 명의 개인이(특히 이 과정에서 자신의 변변찮음을 매번 확인해야 하는 개인이) 견디기에는 꽤 많은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고, 졸업 또한 거대한 준비 시간을 거쳐야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꼭 달성해야만 하는 목표를 위해 ‘유예되는’ 존재, ‘준비 중의’ 존재로 여겨지는 데에 쉽게 자족할 수 없어서 참지 못하고 잡식하는 중입니다. 근데 이러한 거창한 의미 말고도 실제로 살아야 해서(생계를 위해) 잡식을 하고 있고요. 잡식하다 보니까 삶이 조금 미더워지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난잡한 활동들을 잘 엮어 주실 질문이 뒤에 준비되어 있기에 발표를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앉아계신 분들 모두 이미 각자 자기만의 판짓을 왕성히 하고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 불안하고 수상한 판짓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용희 : 네, 안녕하세요. 세 번째 발표를 맡은 이용희라고 합니다. 저는 웹소설 장에서 텍스트들을 만들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PPT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사회자분이 좀 힘드실 것 같아요. 발표 자료를 드리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스스로도 ‘내가 판짓을 하고 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굉장히 제가 공부하고 있는 영역에 붙박혀서 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왜 나를 여기 섭외했지?’ 고민을 좀 해 보니까 지금 2026년 이 현대문학자대회 제3회의 행사가 열리는 지금 여기서는, 저는 제 연구를 위해서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나 영역에 의해

서 필요한 행동들을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저를 섭외한 분은 인문학협동조합 때부터 교류를 해왔고 제가 이제 석사 공부를 할 때부터 계속 지내왔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그 시기에 제가 했던 모든 행동들은 판짓이었겠구나. 결국에는 그 시대에 누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판짓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구조가 있구나. 그랬을 때 여러분이 보시기에든 제가 하는 행동이 판짓인지 아닌지를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처음 시작하기 위해서 1999, 8년 시기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게임 잡지라는 게 있었고 그 게임 잡지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판타지나 로맨스 소설의 원형들이 연재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큰 자극을 줬던 건 스타크래프트에 대한 팬픽 소설이었어요. 내가 내 세계를 창작할 필요가 없구나. 게임의 세계를 차용해가지고 패러디나 표절처럼, 글을 쓰는 것도 이렇게 잡지에 실릴 정도로 좋은 놀이가 되고 글쓰기의 시작점이 될 수 있겠구나. 저도 그래서 스타크래프트로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쯤이 되었을 때 저희 집에도 이제 ADSL이 깔리기 시작합니다. 지방에서는 하이텔이라든가 나우누리를 번들로 파는 ADSL이 없어서 제 첫 번째 시작은 2001년도에 천리안이었습니다. 거기서 연재를 하다가 2002년도 정도 됐을 때 조아라에서 연재를 시작하게 되고 작가의 꿈을 꾸게 되었지요.

대학에 들어가 좀 지났더니 2013년도에 네이버 웹소설 공모전이라는 게 열리게 됐어요. 그때 참여를 했지만 제대로 된 결과를 못 얻고 2017년도에 처음으로 웹소설을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2017년도가 제가 아까 말했던 인문학협동조합에서 활동하던 시기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때가 제가 석사수료를 하고 석사논문을 쓸 때였습니다. 문학 연구자

분들이시니까 아시겠지만 2017년, 18년도 이때는 석사논문은 보통 2년 만에 빨리 치고 가는 시기였거든요. 제가 석사 4학기에 갑자기 계약 제안을 받아가지고, ‘나는 웹소설을 써서 대박 작가가 돼서 돈 많은 연구자가 될 거야’라는 높은 꿈을 안고 1년 반 정도 웹소설을 씁니다. 그래서 2018년도 가을 학기에 코스모스 졸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박사논문을 시작하면서 바로 강의도 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시기였다보니, 당시 연구자분들에게 저는 판짓을 적극적으로 하며 연구 바깥에 있는 사람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러다 2020년부터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2년 정도 했었는데 그때부터 세상이 좀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들의 변화였습니다. 학생들은 아카데미한 영역에서 웹소설을 연구만 하는 사람들을 믿지 않더라고요. 오랫동안 웹소설을 창작하거나 서브컬처 영역의 글을 쓰는 사람들이 굳이 웹소설 학과에 오는 경우다 보니까 ‘연구만 한 너희들이 뭘 알아?’ 같은 반발이 컸습니다. 실제로 대화를 해봤는데 ‘작품 하나도 제대로 모르고, 어떤 작품에 대해 즐거운 소비의 경험과 취향을 공유하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뭘 배워야 돼?’라는 어마어마한 거부감이 상수더라고요. 이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학생들뿐만 아니라 시장에서도 연구자들을 무시했어요. 창작을 하고 출판을 해 본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시장에서도 여러 가지의 배리어이션이 크기 때문에, 예컨대 남성향만 출판했기 때문에 여성향을 모르거나, 여성향을 출판한 기억만 있기 때문에 남성향을 모르거나, 또는 소규모의 플랫폼에서 작은 단위의 출간만 해봤기 때문에 거대한 출판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뭘 안다고 이야기해’라고 하면서 무시하죠. 이 또한 지금까지 여전한 상수값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사유로 이게 내가 단순히 연구나 논문을 쓰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실은 연구자 정체성이라는 게 그렇게 가치가 있는 행동일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직후 학교를 그만두고 나와서 출판사에 들어가서 한 3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0종 정도, 실제로 창작과 제작, 영업, 유통을 진행을 해보고 저 역시도 작품 활동을 2021년부터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과거에 창작한 종이책을 제외하고 웹소설만 한정해도 7종의 웹소설을 출간하고 지금도 실시간으로 연재를 하고 있죠. 그러다 2025년부터는 실제로 제가 출판사를 창업을 해가지고, 웹소설 에이전시를 운영을 하면서 세 작품 정도를 서비스하고 있고 지금, 그리고 아마 올해 말까지는 열 작품 정도 서비스하는 플랜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까 조익상 선생님이 강의 얘기도 하셨는데, 이런저런 작업을 하면서도 이 상업과 연계 네트워크를 놓지 않기 위해서 학교에 나가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 학생들의 작품을 한 학기에 한 100점 정도 수급을 해요. 매 학기마다 학생들에게 창작론을 강의하고 실기 수업을 진행하며 개별 피드백을 해서 작품을 수급하고, 학생들 중에 동의하는 학생들의 동의서를 얻어가지고 B2B로 한 10개에서 12개 정도의 업체에 그 작품들을 소개하는 작업을 계속하면서, 한 학기에도 지금 평균 10명에서 많으면 한 20명 정도 작가들을 데뷔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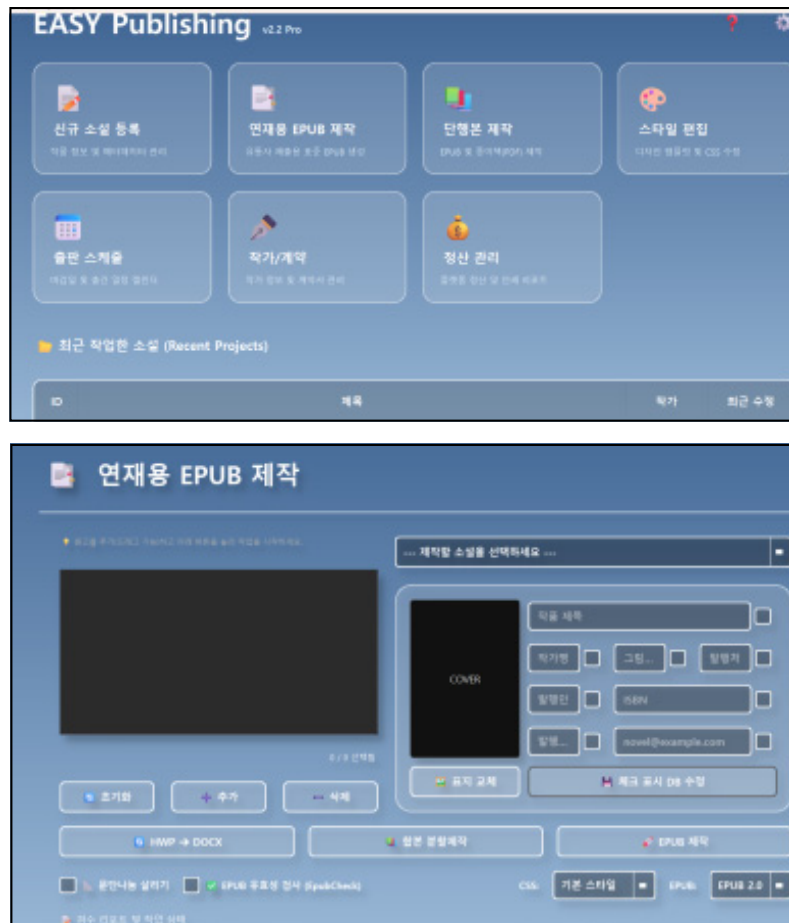
그럼 시대가 어떻게 변했느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모든 작업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연구자로서의 판짓'으로 여겼잖아요. 그런데 사실 몇 년 전부터 웹소설 전임 교원 자리에 공고가 올라오는 걸 보면 그 모든 판짓을 학교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거든요.

2025년 한 해 제가 아는 바로 웹소설 교원 자리가 한 5개 정도 나왔습니다. 광주대, 세명대, 대진대, 순천대 그리고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까지 다섯 군데가 전임 지원자를 뽑는데 그 모든 곳에 보면 제가 해왔던 그 리스트

들이 다 우대 조건으로 들어가 있어요. 현장 경험 3년 이상, 플랫폼에서 3종 이상의 소설을 연재한 경험이 있는 경우. 아니면 웹소설과 웹툰에 대한 기획을 할 수 있고, 실무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있으며 비평 등단을 한 경우. 또 AI 툴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경우 등.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판짓이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웹소설로 학계에 들어오려면 그 판짓도 해’라고 요구되는 필수 요건이 된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 연구와 판짓이라는 이분법이 사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무조건적인 배제에 불과하지 않나, 조금 우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학계가 말하는 ‘기준’에 맞추기 위해 따라가기 급급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제가 판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연구자가 되려고 치열한, 저 나만의 생존을 위한 인정투쟁이 제도권에 기입되기 위한 노력처럼 강제로 포섭되는 기묘한 전환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판짓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최근 제가 하는 판짓을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으로 이것저것 만드는 작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걸 이지 퍼블리싱(Easypublishing)이라고, 이팝을 만드는 자동화 프로그램입니다. 이외에도 시장 내 조회수나 랭킹을 분석하는 분석 방법 툴부터 교육용 툴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서사를 분석해 가지고 서사의 사이드 요소라든가, 욕망이라든가 이런 피드백을 할 수 있는 분석 툴부터 해서 각 형태소를 추출하는, 블라디미르 프로프의 민담형태론의 웹소설 버전용 분석 툴 등을 진행하고 있죠. 이런 작업들 때문에 박사논문을 쓴 지가 1년이 좀 넘었는데, 그 이후로 제대로 된 논문이나 박사논문의 저술화 작업이 밀리고 있습니다. 또 판짓인 셈이지요.



〈그림 4〉 이지 퍼블리싱 프로그램 화면

그런데 이번 학기에 제가 강의 나가는 학교에서 되게 좀 황당한 메일 하나를 받았습니다. 강의계획서 입력 마감이 거의 다 끝난 시기인데 갑자기 메일이 와서, 교육부 지침이니까 모든 과목에 관련이 없더라도 인공지능 관련된 커리큘럼을 3학기에다 3시수에서 4시수를 넣어서 강의 계획서를

수정하라고 하는 메일이었습니다. 아마 교육부에서 이 인공지능 관련된 것들을 계속 드라이브하기 때문이겠죠. 인공지능으로 프로그래밍 해보고, 이런저런 것들은 사업의 영역이었고 개인의 판짓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번 2월달 강의 계획서를 쓰는 시점부터 이게 판짓이 아니라 다시 연구자의 행동으로 호명되더라고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대학이라는 구조 속에서 대학에 귀속되어버린 한 명의 연구기계나 부품이 되지 않게 필사적으로 판짓을 만들어가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나현 :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여성연구소, 그리고 비정규교수노조 부산대분회에 소속된 최나현입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를 이런 식으로 소개하는 건 처음인데요. 저희 노조가 지금 대학 본부와 임금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50일 넘게 파업 중이고, 아마 1학기 내내 파업이 이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소속도 함께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문학과와는 별다른 인연이 없는 저를 이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작년에 출판한 책, ‘백지우사’(『백날 지워봐라, 우리가 사라지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광장에 선 딸들의 이야기’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데요. 윤석열의 비상계엄 이후 탄핵 광장이 열리면서, 그 광장에 열심히 참여했고 언론에서도 많이 주목했던 젊은 여성들을 인터뷰해서 만든 인터뷰집입니다. 2024년 12월 말쯤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총 40명 정도를 인터뷰했고요. 1차적으로는 오마이뉴스에 기사로 연재했고, 2025년 2월부터는 단행본 작업으로 옮겨서 그중 13명의 이야기를 구술 형식으로 담았습니다.

주최 측에서는 이 책을 제 ‘판짓’으로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제 연구 궤적 안에서 보면, 이 책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작업이었어요. 저는

대학원에 진학한 뒤로 계속 인터뷰 연구를 해왔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른바 “페미니즘 리부트”라고 명명되는 시기에 이후 젊은 여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해명하는 것이 제 주된 연구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박사과정에 들어간 뒤에 쓴 논문들도 대부분 그 흐름 안에 있습니다. 청년 여성 자영업자를 인터뷰하기도 했고,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직접 단체를 만들어 활동한 페미니스트 활동가들을 만나기도 했고, 부산대 미투운동 참가자들을 인터뷰한 작업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탄핵 광장에 선 ‘딸들’이라는 주체들, 다시 말해 젊은 여성 정치 주체들을 인터뷰해야겠다고 생각한 것, 그리고 그걸 책으로 만들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제 연구 흐름에서는 당연한 귀결일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 책은 판짓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제가 어떤 방식으로 연구자로 성장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물에 더 가까워요. 저는 여성학이나 사회학 연구자라면 사람과, 또 사회와 계속 접촉하면서 문제의식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제 입장이 이번에는 논문이 아니라 조금 더 대중적인 형식을 통해 작동한 사례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계라는 제도적 공간 안에서는 이런 작업이 너무 쉽게 ‘판짓’으로 분류된다는 점인 것 같아요. 이걸 사실 먹고사는 문제와도 바로 연결되는데요. 작년에 이 책을 낸 뒤 여성연구소 채용 서류를 다시 준비하면서 저는 그걸 꽤 강하게 느꼈어요. 저는 여성연구소에서 4년째 강의를 하고 있지만 비정규 교수라 3년마다 서류를 새로 내야 하거든요. 그런데 채용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연구 성과를 입력하는 칸에 논문 말고는 다른 성과물을 적을 공간이 아예 없는 거예요.

물론 논문으로 양적 평가를 한다는 기준 자체를 몰랐던 건 아니에요. 그래도 논문 외에 내가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관심사와 역량을 가진 사람인지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논문만

적게 되어 있는 걸 보면서, 아, 제도 안에서 ‘판짓’이라는 건 바로 이런 뜻이구나 싶었던 거예요. 채용 서류로만 보면 저는 2025년에 연구를 전혀 하지 않은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상반기 내내 이 책을 만들고 관련된 활동을 하는 데 시간을 썼고, 그 기간에는 논문을 따로 쓸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면서 부산대 전임교원 채용 공고들을 찾아봤었는데, 거의 전부 논문만을 연구업적으로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되게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제 경우에는 이 책 역시 굉장히 학문적인 기획으로 접근했거든요. 저는 이 책을 나중에 탄핵 광장 연구에 대한 연구 혹은 젊은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연구할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만든다고 생각하며 작업했었어요. 그런데 정작 학계 제도 안에서는 이런 작업이 전혀 학문적 성과가 아닌 것처럼 취급되는 거죠.

사실 이런 문제는 제 책만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총서나 백서를 만드는 일처럼, 일부 연구자들이 엄청난 노동을 들여서 나중에 다른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두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시의성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연구자들이 모여 만드는 책들이 있잖아요. 여러 연구자들의 협업 하에 중요한 논의의 장을 여는 그런 작업들이요. 여기에도 또 기획자가 보이지 않는 노동력을 쓰게 되고요. 그런데 이런 책들은 당장 논문 한 편처럼 수치화되지는 않지만, 사실 학계가 굴러가기 위한 중요한 토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제도는 이런 작업을 연구성으로 잘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손이 많이 가고 마음을 많이 써야 하는 일들은, 지금의 학계 속도 안에서는 연구자들 스스로도 ‘중요한 일인 건 알지만 지금 내가 하기는 어려운 일’로 여기면서 자꾸 뒤로 미루게 되는 것 같아요. 반대로 그런 일을 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결국 개인의 책임감이나 의지, 어떤 희생에 기대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고요. 저는 이게 단지 보상의 문제만은 아니라

고 생각하는데요, 학계의 채용 과정에서 무엇을 학문적 성과로 인정하느냐는 결국 어떤 형태의 연구를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볼 것인가, 그리고 연구자들이 앞으로 어떤 작업을 선택하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것이 학문다양성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논문 이외의 작업, 혹은 연구의 토대를 만드는 작업들이 계속 주변화된다면, 연구자들은 인정받기 쉬운 형식의 성과로만 점점 더 몰리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학계에서는 양적으로 평가되기 쉬운 논문, 특히 영어 논문처럼 더 높은 가치가 부여되는 형식의 연구만 살아남게 될 가능성이 큼니다. 저는 앞에서 언급한 여러 작업들을 더 이상 ‘판짓’으로 밀어내지 말고, 학계를 떠받치는 중요한 연구노동으로 다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것은 개별 연구자의 활동 범위를 넓히는 문제를 넘어, 한국 학계의 토양을 무엇으로 구성할 것인가를 묻는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왜 이 작업을 빨리 논문으로 쓰지 않고 인터뷰집으로 만들었느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 인터뷰라는 작업은 늘 ‘이 사람이 가진 고유한 이야기는 무엇인가’,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를 궁금해하는 데서 출발하거든요. 물론 사회학에서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사회를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니까, 저도 그런 점에서 인터뷰 연구를 계속 해왔고요.

그런데 막상 논문을 쓰다 보면, 인터뷰가 자꾸 제가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 필요한 말들을 뽑아와 배치하는 방식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분명 살아 있는 존재인데, 내가 그 삶을 너무 파편화해서 내 논문 속에 끌고 오는 건 아닌가’ 하는 고민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 고민이 있던 차 인터뷰집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조금 더 온전하게 들려줄 수 있는 형식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나의 주장을 하기 위해 선별적으로 정리한 이야기라기보다, 그 사람이 정말 하고 싶어 하는 말이 무엇

인지에 더 가까이 가볼 수 있는 형식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번 작업은 논문보다 인터뷰집의 형태가 더 잘 맞겠다고 판단했던 것 같고, 즐거운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앞에서 제가 한 일이 ‘판짓’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제가 확실히 ‘판짓’을 하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지점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처음에 기획 안내 메일에서 판짓을 ‘사회와 접속하거나 학계 바깥의 변화를 감지하고 개입하는 작업’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그걸 늘 반대로 생각해왔거든요. 저한테는 학계 안에서 바깥을 관찰한다기보다, 제가 살고 있는 세계를 학계 안으로 가져오는 일이 더 중요했어요.

석사과정 때부터도 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내가 관심 있는 사람들에 관한 연구는 이렇게 없지, 그럼 내가 써버려야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세계를 번역해서 논문이라는 형식 안으로 넣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왔어요. 그런데 사회운동을 다루는 연구의 장 자체가 워낙 남성화된 조직과 단체 중심으로 짜여 있다 보니까, 제가 보고 있는 세계를 그 안에 들여놓는 일은 자꾸 비켜 있는 작업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아마 그래서 학계에서는 저를 계속 ‘판짓하는 사람’처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박사논문 주제를 말했더니 어떤 분이 농담처럼 그러시더라고요. 그 논문은 써봤자 ‘불법체류자 보호소’로 가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학계에서 잘 인정받지 못할 주제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저는 그 말이 오히려 좀 재밌었어요. 불법체류자 보호소도 어쨌든 이 제도 안에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고, 오히려 그런 ‘판짓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그 보호소가 가득 차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 질의 응답 및 토론

이한빛 : 이제 플로어와 함께 연구자의 판짓이라는 주제로 폭넓게 이야기를 나눠볼 시간입니다. 네 분의 발표를 쫓 모아서 들으니, 조익상, 장기영 선생님과 이용희, 최나현 선생님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 두 분은 ‘본(업)’과 ‘판(짓)’의 구분을 더 명료하게 인식하면서 동시에 ‘내가 연구자로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같이 던지고 계신 분이시라면, 최나현, 이용희 선생님은 본인이 확장해 온 것들을 다시 이 연구 안으로, 또는 나의 정체성 안으로 어떻게 끌어들이오고 그리고 그게 일종의 연구의 확장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용희 선생님은 나의 활동이 학계의 산정 가능, 계산 가능한 자원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판짓의 영역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생태의 변화 같은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한편, 최나현 선생님은 그런 산정 구조 안에서 결코 포착되지 않은 것들이 나에게서 꾸준히 계속해서 남아 있고, 이 영역을 더 개발하고 싶다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판짓’과 ‘본(업)’을 계속 얘기하면서 얘기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자기 규율, 자기 통치 같은 것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판과 본의 구분 시간과 에너지와 돈과 자원을 각기 다르게 배분해야 되는 협상의 순간이 각자 다들 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안에서 어떤 식의 협상과 조율, 타협을 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신자유주의적인 자기 통치로 환원될 수밖에 없는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살고, 살아남고, 또 이탈하고 있는지 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기영 : 마이크가 제 앞에 있으니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 앞서 말씀하신 자기 통치 즉 효율적인 시간 관리, 자원 배분, 도달하고자 하는 ‘자기’를 위한 다양한 조율 장면에서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사실 학위논문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지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에 다다랐는데요. 지금까지는 평론, 기획 등 불러지는 역할대로 일을 수행해왔기 때문에 정작 제가 달성하기 위해 삼았던 대목표는 계속 유예한 채로 지내온 셈이에요.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자기 통치에 저항한 시간으로 읽혀질 수 있지만, 여전히 제가 대목표로써 도달하고자 하는 ‘자기’를 강력히 설정해두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명백히 실패한 이가 아닐까요. 김새는 말이지 모르겠지만 결국 저는 올해 그 통치에 수렴되기로, 즉 졸업에 매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용희 : 창작을 하는 제자들이나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종종 얘기하는 게 사실 이게 연구자나 창작자의 스케줄이 너무 느슨하고 나이브했던 건 아닌가라고 오히려 되물을 때가 많거든요.

대기업이라든가 기업에 가서 야근이나 퇴근을 하면서 힘들게 산다는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나, 물론 그것들 자체가 정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이 사회 구성원들 중에서 자신의 시간이라든가 사이클이 굉장히 과중하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연구자는 특별하게 시간이 여유 있어야 되고 보증돼야 되나. 6시간, 7시간이 걸리는 어떤 노동보다도 창작자라고 불리는 사람의 1시간이 더 가치 있고 특별한 것으로 대우받아야 된다고 하면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회사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그 3년간의 사이클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오히려 이런 체계적인 일과 타임라인 관리를 더 하게끔 훈련이 되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아무것도 안 하는 파업 주간을 의도적으로 가져요.

내 몸이 너무 힘들다. 그땐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공백의 하루를 만들고 그냥 잠만 잡니다. 잠만 16시간 잘 때도 있고, 12시간 잘 때도 있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옛날에는 사진 작가 활동을 했었으니까 애를 데리고 ‘우리 공원 가자!’라고 해서 하루 종일 아이랑 사진 찍고 오는 날들. 그러면서 그냥 힐링을 하기 위한 시간을 보내고, 그게 다 되면 직장인이 연차 써서 체력을 회복한 것처럼 다시 직장 생활이 제 사이클 안으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며 ‘판짓’이라기 보다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최나현 : 이용희 선생님 답변을 들으면서, 나는 저렇게 체계적으로 시간을 계획하고 관리하면서 살고 있지 않은데, 아니 사실은 저렇게 살 수도 없는데, 그냥 계속 닳치는 일들에 대응하면서 살아오고 있는데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회자님 질문에도 약간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여러 일을 하면서 시간을 어떻게 계획적으로 쓰고 있느냐, 많은 일을 동시에 잘 해내는 비결이 뭐냐고요. 우선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자기통치와 계획적인 생활에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어요.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의지와 무관하게 바깥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응하면서 하게 된 일들이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석사과정 때는 갑자기 학교에서 미투운동이 터져서, 낮에는 수업 듣고 밤에는 대자보 쓰고 대책회의 하면서 한 학기를 보냈어요. 2024년 2학기에도 ‘겨울방학부터는 박사논문을 준비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계엄이 터져서 광장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또 작년 연말엔 ‘이제는 진짜 박사논문뿐이다’ 했더니 노조가 파업을 해서 농성장에 가게 되고요. 이런 활동들에 참여하다 보면 조금씩 맡게 되는 역할들, 업무들이 있는데, 그런 걸 하다 보면 정작 제 일은 좀 밀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시간은 어떻게든

질서를 잡아볼 수 있을지 몰라도, 좀 굼직한 계획들은 온전히 제 의지로 통제할 수 없는 조건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비정규직 연구자라는 조건 자체가, 내 시간을 내 중심으로 조직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늘 불안정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 일을 받을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눈앞에 일이 들어오면 쉽게 거절하지 못하거든요. 그게 당장 생계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미래를 위한 일종의 저축일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원래 내가 하려고 했던 일들은 자꾸 흐트러지고요. 주변에도 시간관리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번아웃을 겪는 친구들이 많아서, 저는 늘 “일 좀 그만하자”, “들어오는 일은 그냥 거절해라” 이런 말을 밥 먹듯이 하는데, 저희 같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에게겐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는 특히 주변 연구자들이 다들 너무 바쁘게, 많은 일을 동시에 하면서 살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논문을 많이 써야 한다는 성과 압박이 있는 것 같고, 또 동시에 자기가 하고 싶은 ‘판짓’도 놓칠 수 없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논문을 많이 써내느라 바쁜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만, 어쨌든 저는 학계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일을 저글링하면서 살아가는 문제를 두고, 개인이 시간관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로만 보고 싶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어떤 학계의 조건 안에서 그렇게 살게 되는지를 같이 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생기는 소진이나 부담도 개인이 혼자 감당하고 극복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환경을 어떻게 바꾸나갈지를 함께 고민해야 하는 문제 아닐까 싶어요.

조익상: 질문이 ‘판짓과 연구의 비중을 어떻게 조절하는가’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뭐가 판짓이고 뭐가 아닌가에 대한 구분도 당연히 필요하겠
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마감에서부터 역순으로, 마감이 닥쳐오
는 일들을 먼저 해치우자’라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연구논문은 못 썼고 심지어 박사 논문까지 못 썼잖아요. 마감을
역산해서 진행하는데도, 정작 제 연구는 계속 밀리고 있는 거죠. 다른 방식
의 우선순위가 작동하고 있는 셈이고, 생각해 보니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이타적인 인간인 것도 아닌데,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제가 속해 있는 단체에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일이 걸려 있는 경
우에는 제 개인 일보다 그걸 먼저 하고 있더라고요. ‘일이 제대로 되지 않
았을 때 손해 보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저만 손해 보면서 끝나는 일
이면, 예를 들어 연구재단 AB형 지원 사업 넣는 건, 안 넣으면 저만 손해잖
아요. 근데 그거 준비하다가 다른 급한 거 먼저 해야지 하면서 먼저 하고,
논문 투고도 미루고, 박사 논문도 미루고 등등. 그렇게 밀려나고 있었던 거
로구나, 하는 생각을 최근 하게 되었습니다. 판짓과 판짓 아닌 것을 초과하
는 기준이 작동한 모양입니다.

이한빛 : ‘불러주는 대로 일을 한다’, ‘마감대로 일을 한다’, ‘닥치는 현장
에 있으면 그에 대응하면서 일을 한다’라는 식의 유연한 대응을 말씀하시
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고도로 ‘체계화된 형태의 시스템을 내가 굴리는
데 노력하고 있고, 그것을 좀 더 잘 다뤄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도 다른 부업이나 부캐가 필요한 게 아닌
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달리 말해 업무와 연구와 판짓의 경계가 아
주 모호한 상황에서 오히려 이 판짓들은 학계라는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
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연동되어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최나현 선생님이 간단히 언급해 주신 것처럼 연구자의 번아웃을 유

발하는 태도와 무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판짓을 통해 번아웃으로 귀결되지 않는 새로운 활력과 만남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장기영 선생님이 말씀하셨듯 논문 작업은 누가 내 논문을 읽을 것인가, ‘누구와 만나는가’라는 막연한 질문과 연결된다면, 이와는 대조적으로 판짓은 다른 연구자, 또는 연구 밖의 독자 및 사회와의 만남을 만들어내기도 할 것 같은데요, 판짓을 통해 열린 만남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독백처럼 느껴지는 면이 있는 연구활동과 구분되는 판짓으로부터의 만남을 이야기해보면서 판짓의 의미를 발굴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조익상: 마이크가 가까운 김에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원 학과와는 다른, 독립 연구단체 활동이랄까요, 그런 세미나 모임에서 공부한 것이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활동이 종료된 ‘카이로스CAIROS’라는 그룹도 있었고, 지금은 ‘캣츠랩CATSlab’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게 실은 연구를 하고 싶어서, 공부를 하고 싶어서였다는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제가 주로 하는 게 학계의 시선에서 판짓이라 할 수도 있는 만화 관련 이것저것인데요. 제가 찾아다닌 곳들은 딱 만화 쪽이라기보다는 문화연구, 신유물론, 요즘은 AI 등등 제가 제 연구에 적용할 수 있을 만한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그것을 제 전공 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할 동료 찾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찾아가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판짓을 통해서 이런저런 동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화 쪽 일이라는 게 일종의 오타쿠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주변에 공부하는 오타쿠 분들을 만나게 되면 막 반갑고 같이 환호성을 지르게 되는 거죠. 판짓 덕분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제법 많습니다.

장기영 : 아까 이한빛 선생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저는 ‘본’과 ‘탄’의 구분을 어느 정도 전제하며 지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과 떨어져 지내고 싶어 하면서도 사람을 계속 만나고 싶어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연구’라는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제 행위자 정체성을 가져갈 때 제가 자주 느낀 것은, 뜻이 맞거나 주제가 맞는 동료 연구자를 찾기 쉽지 않고, 제가 그리 사교적인 타입도 아닌지라 현대문학 연구를 ‘본’이라고 했을 때 저는 이 ‘본 영역’ 내에서는 철저히 혼자라는 생각을 꽤 합니다. 고립감을 유독 강하게 느끼는 편이기도 한데, 제가 가끔 어디서 ‘나는 혼자다’라는 말들을 하면 제 주변 연구자 선생님들이 상처다, 하며 너스레 떠시긴 합니다(웃음). 사실 연구를 ‘본 영역’으로 삼을 만큼 충실히 이행하는 이가 아니다 보니, 성실한 연구자 동료, 선후배 선생님들에 비하면 저는 아무튼 유별난 사람, 혹은 외판섬처럼 느껴진다, 라는 말입니다.

제가 연극 분야에서 하는 평론, 기획 활동들은 분명 제 전공과 유리된 것처럼 보이고 저 또한 그리 구분지어 활동하는 편인데요. 한편으로는 제가 하는 모든 작업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즉 내용들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데, 세계가 다르다고 느끼는 듯하네요. 가령, 제가 논문에서 재현의 역학이나 그 인식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해왔는데, 이게 연극 평론 혹은 행사 기획에 당연히 포함되고요. 또한 연극계에서 만나게 된 사람들, 그들의 활동과 사유 등을 참고하며 제 연구의 활로가 되어주는 아이디어를 만나기도 하고요.

이용희 : 저는 이제 판짓에 의해서 만난 그룹이 자의에 의해서 만난 그룹과 타의에서 만난 그룹으로 두 개 정도로 나뉘질 것 같은데요. 타의에 의해 만난 그룹은 제가 이제 석사 때 혼자서 웹소설만 쓰고 있고 혼자서 약간 폐쇄적으로 오타쿠처럼 글을 쓰고 있으니까 존경하는 선배 선생님이 저를

잡아 끌더니 학교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오타쿠 인문학은 할 수 없다, 나가서 같이 이 펠드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만나라 해서 인문학협동조합으로 저를 끌고 갔어요. 그때 국문학계에 연구하시는 많은 연구자들을 만나게 되고, 덕분에 외부의 교류를 원하는 장르 연구자분들을 그때 되게 많이 만났어요. 그때 조성한 팀이 '텍스트릿'으로 2017년 12월에 만들어져서 거의 한 10년 가까이 웹소설이라든가 기타 SF나 무협 같은 장르를 연구하는 연구자들끼리 논문을 읽고 세미나하는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사업을 계속하고 출판 업계에 있다 보니까, 업계에 있는 산업 현장에 계신 분들과의 모임이에요. 시장이 어떻게 굴러가는지에 대한 것들을 많이 듣고,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매개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만드는 분들이예요. 실제로 학계 언어로 번역해서 시장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오는 역할도 필요할 것 같고, 또 학계에서 말하는 연구가 어떻게 번역해서 시장에 적용될 수 있을까 같은 것들을 같이 고민하는 현장의 동료 연구자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이미 시장에 있는 PD분들이나 아니면 직급이 좀 있는 분들 중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증명하고, 증언하고, 또 학계 안에 산업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진정성 있게 기입하고 싶다고 하는 욕망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런 분들로 인해서 웹툰이나 웹소설에서 1년에 지금 논문이 그 학제에서만 20개, 30개씩 막 나오고 있죠. 그런 분들과의 만남들이 좀 많아지면서 지금 그쪽으로 또 무언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기획을 하고 이야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최나현 : 사회자님께서 논문이 독백이 되는 순간이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저도 늘 논문을 쓰면서 ‘이걸 누가 읽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제게 독자가 중요했던 건, 제가 논문에서 써온 사람들이 대체로 주류 사회에서 잘 이야기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자의식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예

를 들면 고졸 청년들이 어떻게 일하고 살아가는지, 혹은 페미니스트로 활동하는 여성들의 삶 같은 것들이요.

저는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싶어서 인터뷰를 하고 논문을 썼는데, 막상 쓰고 나면 그 논문을 읽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들을 만나서 어렵게 쓴 이 글이 결국 누구에게 가닿는가, 그런 고민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책을 내고 나니까 그 지점이 확실히 해소되더라고요. 책을 읽은 분들이 서평을 써주시거나 자기 이야기를 덧붙여주시는 걸 읽는 경험이 되게 좋았어요. 또 북토크를 하면서 독자들을 직접 만나게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아, 내가 한 작업이 실제로 누군가에게 읽히고 있구나, 그리고 그 읽기가 또 다른 만남으로 이어지는구나, 이런 걸 훨씬 더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런 점에서 저한테 책 작업은 논문보다 훨씬 더 많은 독자와 만나게 해 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의 의미나 효용도 훨씬 더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뭔가를 쓴다면, 연구서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대중 독자들이 읽을 수 있는 방식, 그러니까 연구와 독자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지지 않는 형식을 더 고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한빛 : 시간이 어느새 3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고 논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이한솔 : 안녕하세요? 연세대 석사수로 이한솔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세션을 들으러 온 이유는, 저는 판짓을 하다가 대학원 왔고, 대학원 와서는 판짓을 계속하면서 대학원을 다녀야 되는 입장이어서인데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는 학부 졸업 후에 바로 대학원을 오지 않고, 직장

다니다 그만두고 온 경우입니다. 학부 졸업 직후 진학은 확신도 없고 집안 형편도 안 돼서 ‘일단 그러면 월급 모아서 등록금 만들어보고 생각하자’ 하고, 32살에 퇴사하고 석사과정 입학했습니다.

아무래도 학비나 생활비를 집안에서 지원받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대학원 입학 이후에도 직장인으로서는 아니더라도 계속 공부와 전혀 별개의 경제활동을 병행하면서 코스웍은 마쳤는데, 학위논문 준비를 앞두니까 고민이 많이 들더라고요.

직장인 시절에 출판사를 다녔던지라, 대학원 와서는 계속 상업 단행본 출판사들로부터 교정교열 작업을 의뢰받아서 해왔어요. 그런데 논문 쓰시는 선배님들 보니까 학위논문을 쓸 때는, 더군다나 석사학위논문은 논문을 써본 적 없던 사람이 처음 써보는 논문이니까, 일을 병행하면서도 도저히 쓸 수 없겠더라고요. 그렇지만 논문 쓸 때도 생활비는 계속 나갈 거고, 그러면 논문 쓸 땐 일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지금은 논문을 한 학기 미루고 될 수 있는 대로 일을 다 받자.’ 하고 진짜 들어오는 일을 다 받아서 쳐내느라 논문 준비는 하나도 못 한 채로 한 학기를 보냈더니 지도교수님께서 ‘논문 구상 진척이 더디니 한 학기 더 미루자’ 하시는데 수궁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또 한 번 더 미루게 돼서, 현재 저의 석사논문은 7학기에 나오면 다행인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인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사회자 선생님께서 여쭙보신, 그리고 발표하신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어떤 광의의 판짓이 결국에는 다 역설적으로, 궁극적으로 판짓이 아니게 되는 데 목표가 있고, 판짓과 본업의 경계를 무화하거나 혹은 더 시너지가 나게 하는 효과랄까, 그런 의미가 있는 활동들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야 하나 여쭙보고 싶었어요.

연구자로서, 물론 아직 석사과정이지만 만약에 석사논문을 무사히 쓰

고, 그 이후 단계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면 내가 계속 연구를 할 수 있을까? 만약에 전업 연구를 하게 되면, 박사과정, 박사수료 이런 과정을 밟게 되면, 경제적 여건 마련과 이것이 양립 가능한가? 근데 이게 해보니까 양립 가능한 볼륨이 아닌데 어떡하지? 이용희 선생님처럼 잠을 하루에 3시간 주무시지(?) 않고는... (일동 웃음) 내가 욕심이 너무 많은 게 아닐까? 연구랑 생계활동, 아무것도 제대로 못 하는 꼴이면 어떡하지? 이번에 외주도 오는 대로 다 받았던 게, 의뢰받는 노동(?)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 처지였기 때문도 있었거든요. 프리랜서라도 경우마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저 포함 주변의 많은 경우에는, 1인 사업자로 분류는 되지만 사실상 비정규직 도급계약 노동자라서 불안정노동자 정체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어서, 선생님들께 많이 공감이 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 어떻게..., 저 7학기에 논문 쓸 수 있을까요?(일동 웃음)

이한빛 : 이한솔 선생님의 질문을 정리해보면, 판짓이라고 논의된 것들은 사실 상당 부분 곧 연구로 이어질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연구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결코 연구가 될 수 없는, 아득히 멀리 있는 일들을 병행해야 하는 조건 놓여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서, 그 상황들을 각자 어떻게 버티시는가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용희 : 물리적 시간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사유하는 시간이나 공부하는 시간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글을 쓰기 위한 물리적 시간이 저는 박사 논문은 한 6개월이라고 보고, 석사논문은 한 한 달에서 두 달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쓰는 데만 드는 물리적 시간만 놓고 보면요. 도서관에 박혀가지고 우연히 만나는 우발적인 텍스트들도 다 수집하고 모든 것들이 다 끝

났을 때 ‘진짜 논문을 쓰자!’ 하고 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시간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으면 다른 것들은 분명히 포기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포기가 안 된다면, 이제 뭘 포기해야 되냐면 큰 연구를 하고 거창한 연구를 하는 걸 포기해야 돼요. 선배 연구자에게 들었던 조언 중 지금까지도 제가 좀 곱씹는 조언이 있는데 “용희야, 너는 10년 동안 네 이름을 아무도 모르는 연구를 해야 돼. 너는 토대 연구를 해야 되고, 웹소설 연구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기초적인 언어가 무슨 의미냐. 예를 들면 남성향, 여성향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쓰는 용어를 우리가 학제 안으로 넣으면서 어떤 의미인지 정의를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여성향 웹소설을 연구하고 떨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반 연구, 웹소설을 뭐라고 할 것인지에 대한 기반 연구. 플랫폼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의 기반 연구. 이것만 10년 해야 돼. 그러니 너는 그 10년 연구가 끝나고 뒤 후속 연구자들이 너의 연구들로 되게 이름을 많이 낼 거야. 너가 유명해지려고 하지 마.” 이 얘기를 엄청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 아까 처음에 ‘나 때’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나는 어떤 연구를 해야 되지? 고민을 하다가 나만 할 수 있는 연구, 아까 말했던 출판의 이야기나 창작에 관한, 나의 체험으로서 남들이 아직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연구에 필요할 무언가들을 기입하자고 생각하면서 박사논문을 계속 썼어요.

제 논문을 심사해주신 분 중에서 선생님 한 분이 저를 이제 연구실에 불러 놓고 그 태도에 대해서 되게 좋게 얘기를 해 주신 게 뭐냐면, 아마 선생님한테도 비슷할 것 같은데 “너는 백날 연구해 봤자 국문학 연구자들에게 안 돼. 네가 바흐친 얘기하고, 롤랑 바르트 얘기하고, 루카치 얘기를 해봤자 10년, 20년 교수 돼 있는 분들이 얘기하는 거 절대로 못 따라가. 그러니

너는 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얘기를 해라. 문화 콘텐츠 영역으로 아예 가 버리든가, 문화 콘텐츠 안에서는 또 포착하지 못하는 창작이나 국문학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너의 고유성을 찾아가고 목소리를 찾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저장한 연구라든가, 훌륭한 연구라든가 우리가 공부하고 가져갈 연구를 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개인의 증언 같은 논문도 의미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웹소설 교정 교열 작업이나, 편집 노동자에 대한 논문은 제가 알기로 거의 없거든요. 전체 논문이 300개가 넘어가는데도. 그럼 그거는 선생님만 할 수 있는 연구일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찾아가느냐가 사실은 제 번아웃을 해결하는 방법이었어요. 내가 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의미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도 창작도 바깥의 사업들도, 저는 저 스스로 조금의 재미나 의미를 찾을 수 있었고, 그것들이 아마 앞으로 공부를 하시거나 또는 판짓이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 교정 교열을 하시는 모든 작업들에 대해서 아마 힘을 드리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나현: 이용희 선생님 제외하고는 다 박사논문을 못 쓴 상황이라, 저희가 다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일동 웃음)

조익상: 저도 같은 학과 같은 전공이다 보니 동질감을 느끼면서 앞서 나온 얘기와 겹치지 않는 선에서 한 말씀 드리자면, 경제 활동이라는 판짓, 굉장히 발목을 잡는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경험을 했던 입장에서, 완전한 해답은 아닙니다만 제가 썼던 방법 중 좋았던 걸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어찌면 쓰고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걸 혹시라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립니다. 대출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입니다. 학자금 대출에 더해 생활비 대출도 있고요. 대출에 대

해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장학재단 대출은 이율이 무척 좋기 때문에 받을 수 있을 때 받는 게 좋고요. 대출을 받아서 다른 경제 활동을 덜 할 수 있다면, 한 학기 동안 논문만 쓰겠다고 결심하고 쓰는 것이 제 주변에서 종종 본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시간을 돈 주고 빌리는 느낌이랄까요. 이걸 꼭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런 방법도 있다는 맥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한빛 : 생존 요령이라고도 할 수 있는 면 같습니다. 다른 질문을 주시거나 본인의 판짓, 본인의 대처방법을 나누어 주실 분 계실까요?

정고은 : 조익상 선생님께서 즐거운 판짓에 관해서 쓰신 부분에서 ‘연구자 공제회 후원 등’이라는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연대 단체로 대학원생 노조와 연구자 공제회가 왔는데요. 오전에 계속 노조 부스에 있으면서 저 또한 즐거웠거든요. 선생님께서는 공제회 활동 후원을 통해서 어떤 즐거움을 느끼고 계시는지가 궁금했구요.

또 여러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국 연구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1년에 학술논문 몇 편은 써야 돼!’라는 암묵적인 규범에 대한 자기 해방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판짓이든 판짓이 아니라고 여겨지든 간에, 내 연구를 어떻게 사회화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자들이 더 많이 상상하고 의식적으로 자각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상 : 제 즐거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요, 가성비 좋다는 말이 될 것 같아 걱정인데요. 제 돈이, 한정된 제 자원 중 일부가 무척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에 쓰인다는 게 보람차다는 의미에서 즐거운 것 같습니다. 특히 연

구자 공제회를 내세운 이유는, 이 자리가 연구자 정체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세션이어서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연구자 공제회가 하려고 하는 일이 제도를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연구자가 사는 삶에 대해서, 연구자의 경제활동, 연구자의 경제적인 삶에 대한 상상 자체를 바꾸는 과정인 것 같거든요. 조금이지만 후원하고 있는 단체가 이런저런 활동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좋은 힌트를 주고, 또 그 활동에 제 주변 연구자들이 더 많이 참여하게 되는 과정을 보는 게, 돈 조금 내고 또 가끔은 약간의 활동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투자 대비 아주 큰 보람인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의 즐거움을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이한빛 :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이랑 아주 밀접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다른 상상이나 사회에 접속하는 방식으로서 연구자 공제회가 선생님께 와닿고 계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는 분 계신가요?

코쭈 리디아 :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냥 코멘트인데요. 저는 이탈리아 카포스카리 베니스 대학교에서 온 코쭈 리디아라고 합니다. 저희 학교에 아카데미와 대중을 연결할 수 있도록 ‘3rd mission’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실효성에 대한 의견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연구의 성과가 아카데미 바깥의 대중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만드는데 제도적 측면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나현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공감이 되고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구직을 하면서 연구 성과 외의 일들을 적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앞으로 제 의지와는 상관 없이 연구 외 다른 활동과 병행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시대에 따라 정책이 연구자의

다양한 일들을 포괄하고 “연구자의 판짓”의 범위를 인식하고 확장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한빛 : 선생님이 하시고 싶은 판짓은 혹시 뭐가 있으신지?

코쭈 리디아 : 저는 번역이랑 통역을 많이 하고 싶은데요. 그리고 통역 노조를 만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통역이라는 일이, 어쨌든 한국어에서 이탈리아어로 통역하는 일 자체가 수요가 많지도 않지만, 제대로 된 노동비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도 스스로 자기 노동이 얼마나 귀중한지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저는 노조를 만들고 싶습니다.(일동 박수)

이한빛 : 네, 또 혹시..?

김민경 : 저는 시립대에서 석사 과정 하고 있는 김민경입니다. 대학원 생활을 시작하면서 유기견을 임보하다가 입양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의 과정에서 가장 크게 고민했던 게 제가 경제적, 물리적으로 불안정한 신분의 대학원생이라는 점이었어요.

반려동물을 들인다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인생이 시작된다는 의미이잖아요. 앞으로 연구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반려동물을 책임질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지금은 사실 제 인생도 잘 돌보지 못하는 것 같은데, 다른 생명체를 하나 책임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하다 교수님한테까지 여쭙봤어요. 대학원생이 개 키우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일동 웃음) 그때 제가 심신미약이었거든요. 교수님은 대학원생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니 힘들지 않겠냐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사랑하게 되어버린 강아지를 보내기가 힘들어서 함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결국 강아지를 키우는 1인가구 대학원생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연구자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자주 해요. 저는 가능하면 좋은 연구자가 되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면 솔직히 강아지를 돌보고 사랑하는 데 쓰이는 시간과 자원이 낭비처럼 느껴지는 날도 있어요. 연구자의 본질이 무엇이기에, 사랑하고 돌보는 일이 사치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건강한 판단을 잘하고 계신 선생님들께 여쭙보고 싶습니다.

이한빛 : 답변해 주실 분 있을까요?

최나현 : (이용희 선생님께) 바쁜 와중에 심지어 반려동물도 키우시나요? (일동 웃음)

이용희 : 석사 때, 2013년이니까 학부 때네요. 길거리에서 개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좀 큰 개가 산책하는 개인데 개한테 태어난 지 보름밖에 안 된 고양이가 계속 안기더라고요. 그때 갈비뼈가 너무 앙상하고, 굵은 것 같아서 애를 이제 병원에 데리고 왔더니 사흘 정도는 굵은 것 같대요. 고양이가 자폐 증세가 좀 있어서 어미가 버리고 간 것 같다고 해서 한 달 임보를 하고 입양을 했는데 그게 둘째 고양이였어요. 이미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어 가지고.

그래서 그 대학원생 내내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마리의 고양이한테 들어가는 비용도 많고, 또 고양이 한 마리가 아까 말했듯 약간 자폐 증세가 있어서 비닐을 씹고, 계속 토하고, 이런 병수발을 하면서 한 14년을 키웠고 올해 5월, 이제 작년이죠. 작년 5월에 무지개다리를 건널 때까지 계속 기르고 한 마리만 남아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애도 키우고 있고 가족도 있지만, 말씀

하신 것처럼 애들 기를 때 그 모든 것들도 다 실은 연구의 방해거든요,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하지만 그걸 다 같이 해나가면서 연구를 하는 거니까, 사실 그것들에 대해서 연구자의 정체성이나 이런 고민보다는,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연구와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조금 더 빨리, 다른 형태로 배워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무언가 내가 다른 사람들 또는 다른 어떤 존재들과 연결되어서 같이 살아가는 데 소비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안에서 어떻게 연구를 할 것인가의 고민을 조금 더 해 나가신다면 그러면 강아지를 기르는 경험 자체가 조금 더 빨리 또 먼저 경험하는,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연구자로서의 나의 정체성, 연구자의 정체성이 아니라 연구자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기영 : 저 또한 비슷한 고민을 했는데요. 저는 연구하고 있을 때 ‘연구에 매진한다’, ‘집중한다’, ‘다른 것들은 다 차치한다’라고 느끼거나 생각해요. 실은 그 감각이 너무 싫어서 판짓을 시작한 부분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연구를 하다 보면 ‘나’를 잊어요. 그래서 제 건강상의 문제들 가령 자주 허리나 배가 아픈데요. 이런 것들이 연구에 집중해야 할 때는 변명이나 핑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작한 것은 요가였고요. 아무리 마감이 몰아치는 때이더라도 주 2회는 요가원을 가는 식으로, 몇 안 되지만 이런 루틴들을 만들고 지키려 합니다. 꼭 이런 방식이 아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비인간동물 전반을 무서워하는 편이어서 비인간동물을 돌보지는 않지만, 인간동물, 비인간동물, 식물, 사물 중 무엇을 돌보든, 혹은 자기를 돌보든 간에, 연구하는 동안 반드시 돌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판짓은 여기서도 관련이 되는데요. 앞서 발표하면서 언급한 판짓들은,

사실 생계를 위한 것이기도 했어요. 학교 안에서는 제가 저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들이 충당되지 않아요. 물론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연구하며 살려면 연구만으로는 살 수가 없어서 연구 외의 일들(판짓)을 한 것이 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한 판짓 때문에 저를 불러주는 곳이 많아지기도 했고요. 아무튼 소박한 루틴이든 혹은 평론, 기획 일이든 모두 제가 저를 돌보는 차원에서 시작하고 지켜나가는 판짓들이긴 합니다.

이한빛 : 지금까지 판짓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판짓의 경계가 모호하거나 또는 판짓과 본업 사이에 무게가 바뀌거나 하는 내용은 충분히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모든 판짓들은 여러분 각자의 욕망과 쾌락과 어떤 식의 접속에 대한 갈구와 맞닿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는 어떤 즐거움이나 희열 같은 것을 기대하는 마음도 있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판짓을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소중한 순간들을 다시 재차 말하는 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연구공동체에서 사실 그런 이야기는 거의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경험적인 측면도 있고요. 선생님들께서 그런 순간이나 감각에 대한 말씀을 짧게 나눠주시면서 오늘 마무리 발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나현 : 판짓을 하면서 즐거웠을 때를 말하면 되는 건가요? (웃음)

이한빛 : 안 즐거울 때도 알려주세요.(웃음)

최나현 : 질문지를 보면서 ‘백지우사’를 쓸 때 즐거웠던 기억들을 좀 떠올려봤어요. 확실히 논문을 쓸 때랑 이 책을 쓸 때 제 태도는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논문을 쓰기 위해 책상 앞에 앉으려면 기본적으로

한 3만 원은 쓰고 시작해야 되거든요. 맛있는 밥 먹고, 커피 사 마시고, 디저트까지 먹어야 돼요. (일동 웃음) 그러니까 논문 쓰기는 너무 싫지만, 그래도 맛있는 것들로 기분은 맞춰놔으니까 이제부터는 글을 쓰자, 이런 식인 거죠.

그런데 이 책을 쓸 때는 정말 좀 달랐어요. 되게 즐거웠거든요. 어떤 날은 출근길에 어서 빨리 연구실로 가서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막 써내려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진짜로 빨리 걸었던 날도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이걸 즐기고 있다고까지는 생각 못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되게 즐기면서 했던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그런 힘으로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책을 쓸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은 그때의 기억이, 이렇게 늘 3만 원을 써야 겨우 시작할 수 있는 논문을 진행하는 데에도 꽤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비슷하게 느꼈는데, 우리가 본업이라고 생각하는 일, 또 본업 안에서 요구되는 하기 싫은 일들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특별히 돈을 들이지 않아도 내 안에서 동기가 일어나는 활동, 그런 즐거운 작업들을 계속 붙들고 있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이용희 : 네, 저는 통장에 돈이 찍힐 때 제일 좋습니다. (일동 웃음) 사업을 하는 이유도 그렇고 사실 행위 자체가 즐거웠던 건 거의 없어요. 그냥 일상을 유지하는 것 자체에 많이 주력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아내나 주변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는 게 논문 쓸 때가 제일 재밌어요. 연구할 때가 제일 재밌고, 진짜로 내 논리를 만들어 가고 ‘야~ 이걸 아무도 안 했지?’ 막 그러면서 (일동 웃음) ‘내 논문을 내가 인용해야지’ 막 그럴 때가 재밌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판짓과 본업의 경계가 많이 흐려졌다고 여기는 게 오히려

논문이 판짓이 되다 보니까 재밌거든요. 저는 논문이 저에게 판짓인 거예요. 거의 모든 영역에서 80%는 사업과 소설 여기에 있으니깐, 논문 쓸 때가 너무 즐겁고 즐겁다, 안 즐겁다는 기준이 다 다르겠지만, 그럴 때 나의 즐거움의 비중이 어디 있는가 찾아가시는 게 되게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장기영 : 방금 이용희 선생님 얘기 듣고 저도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일까, 라는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요. 맞는 것 같아요. 이거 하기 싫을 때 저거 하고, 저거 하기 싫을 때 이거 하고, 이런 식으로. (일동 웃음) 여러 루트를 뚫어 놓은 것들이 결국 저를 이렇게 이루어서, 어떨 때는 연구자, 어떨 때는 기획자, 이렇게 불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연구자라고 불릴 때도 멋쩍고, 기획자라고 불릴 때도 멋쩍게 느끼기도 하고요. 사실 앉아계신 청중 선생님들이 저보다 훨씬 다양한 판짓들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선생님들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는데, 나중에 좀 더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 마련해주시고 채워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익상 : 네, 사실 이제 학위논문이든 소논문이든 저도 슬슬 마주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 자리를 터닝포인트 삼아서, 판짓에 대한 저의 천착을 이제 좀 마무리하고 본업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강의까지도 판짓으로 취급되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 같은 복잡한 생각들을 오늘 얘기하고 싶었는데, 일부 조금 미진하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여튼, 연구를 제대로 마주하고 싶다는 맥락에서, 제가 들었던 가장 효율

적으로 보이는 판짓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으로 끝맺음을 해 보려 합니다. 10년쯤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고려대에 계신 권 모 선생님이신데요,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분이 연구를 위해 논문을 쓰시고 하다가 잠깐 머리를 식히기 위해 판짓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매일신보』 등의 자료를 보는 일이라고 합니다. (웃음) 그런 식으로 판짓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걸 배워볼 만도 하겠다는 그런 마음과 함께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죠?(일동 웃음)

이한빛 : 네, 본의 아니게 아주 건설적인 (웃음)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판짓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판짓에 붙는 수많은 수사들, 방황이나 낭비나, 지체된다거나 아니면 엉뚱한 짓이라거나, 그런 수사들에 붙어 있는 선형적인 시간을 넘어서서 연구를 둘러싸고 우리가 하고 느끼고 감각하는 이 모든 것들을 넓게 사유할 수 있는 자리가 앞으로도 생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저희 라운드 테이블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라운드테이블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Abstract

Roundtable: The Researcher's *Ttanjit*

Lee, Han-Bit(Yonsei University; Cats Lab)

Jo, Ik-Sang(Seowon University; Cats Lab)

Jang, Key-Young(Yonsei University Mirae Campus)

Lee, Yung-Hee(Hanyang University)

Choi, Na-Hyun(Pusan National University)

Lee, Han-Sol(Yonsei University)

Jeong, Go-Eun(Sungkyunkwan University)

Cossu, Lidia(Ca' Foscari University of Venice)

Kim, Min-Kyung(University of Seoul)

This article is a record of the roundtable discussion “The Researcher’s *Ttanjit*,” held at the Third Conference of Korean Modern Literature Scholars on February 20, 2026. Using the keyword “*ttanjit*” —roughly meaning side projects or academic moonlighting— the roundtable examined how researchers’ activities beyond the conventional boundaries of research relate to individual scholarly identities and the culture of academic communities.

The four presenters explored the meaning of *ttanjit* from diverse perspectives, drawing on their experiences in comics criticism and teaching, performing arts criticism and planning, web novel writing and publishing, and the production of interview collections and labor-union activities. The discussion suggested that *ttanjit* is not merely an activity external to research but can be redefined as a process through which researchers engage with colleagues and citizens both inside and outside academia and reconsider the social significance of their scholarly work. The participants also explored the boundary between researchers’ primary work and *ttanjit*. It was noted that the distinction between the two, shaped by the expectations that the state and society place upon academia, may both

create new opportunities for researchers and impose constraints on their lives. In particular, concerns were raised that the current institutional practice of recognizing only journal publications as research outcomes fails to adequately reflect diverse contributions to academic communities. The subsequent discussion addressed issues such as balancing research and livelihood, time management and self-care, connections between academia and society, and participation in scholarly communities, while participants shared their perspectives on the structural conditions facing researchers today and the ways they respond to them.

By bringing together diverse experiences and reflections on the boundary between research and *ttanjit*, the roundtable offered an opportunity to reconsider researchers' lives and the sustainability of academic communities from a fresh perspective.

(Keywords: researcher's *ttanjit*(side project/academic moonlighting), researcher's identity, academic community, research and livelihood, self-care)

논문투고일 : 2026년 5월 25일

게재확정일 : 2026년 6월 15일